

# 후카사와 카이(深沢夏衣)의 글쓰기 의미\*

## - 소설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

박성주\*\*

### 〈차 례〉

1. 들어가며
2. 『계간 잔소리』의 창간배경과 지향점
3. 후카사와 카이의 『계간 잔소리』에서의 집필활동
4. 표현매체의 변환: 자유로의 추구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재일조선인여성작가 후카사와 카이(深沢夏衣, 1943~2014)에 주목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소설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계간 잔소리』에서의 활동과 그녀의 데뷔작 『밤의 아이』에 초점을 맞춰 그녀의 글쓰기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후카사와 카이가 『계간 잔소리』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였으나, 2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민족규범'에서 벗어나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된 시기였다. 그녀는 편집위원으로서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시도하였으나,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쓰고자 한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계간 잔소리』가 폐간된 이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마음껏 펼치고자 소설을 쓰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한 그녀의 시도였다. 즉 그녀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마음껏 펼치고자 한 자유로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녀의 글쓰기 의미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 본고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9회 동아시아와 동시대일본어문학포럼 온라인대회(第9回 東アジアと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オンライン大会)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나고야대학교 인문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2년생.

[주제어] 후카사와 카이, 재일조선인, 『계간 잔소리(季刊ちゃんそり)』, ‘귀화’, 글을 쓰는 의미.

## 1. 들어가며

후카사와 카이(深沢夏衣, 1943~2014)는 니가타(新潟)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sup>1)</sup>2)세로, 본명은 야마구치 후미코(山口文子)이다. 그녀는 1959년에 부모님의 귀화로 인해 일본국적을 취득하였으며, ‘후카사와 카이’라는 필명을 사용해 1992년에 『밤의 아이(夜の子供)』(講談社)를 통해 문단에 등장하였다.<sup>2)</sup>

그녀는 1990년대에 문학자로서 등장함으로써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나, 사실 1960년대부터 노동운동과 함께 잡지의 편집자로서 활동하여 일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해왔다. 2015년 신칸샤(新幹社)에서 출판된 『후카사와 카이 작품집(深沢夏衣作品集)』에 서술된 그녀의 연보를 확인하면, 1965년에 한일조약 반대투쟁을 비롯한 여성에 의한 서클을 조직하여 “여성 문제”를 논의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1968년에는 태평양 출판사(太平洋出版社)에 입사하여 고교시절부터 꿈꿔왔던 편집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조선과 관련된 기획과 편집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에 출판사

1) 식민지 시대를 비롯한 해방 이후 제주4.3, 조선전쟁 등의 불안한 정세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서 살고 있는 1세대 조선인 및 그 자손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재일,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아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인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당사자의 상황과 사회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들에 대한 용어의 혼미성(混迷性)은 국적과 출신지역, 지지하는 단체 등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반도에 뿌리를 지닌 자들을 총칭하는 용어인 재일조선인을 사용할 것이며, 소설 등의 작품에서 ‘자이니치(在日)’ 등의 용어가 나올 경우에는 재일조선인이라 의역하지 않고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徐京植,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ひと?』, 平凡社, 2012, 40~54쪽; 尹健次, 『「在日」の精神史』 3-アイデンティティの揺らぎ, 岩波書店, 2015, 146~148쪽)

2) 그녀는 ‘귀화’를 주제로 한 『밤의 아이』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신일본문학특별상(新日本文学特別賞)을 수상하게 되어, 주변의 재일조선인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와 동시에 민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민족명을 사용하는 것이 조선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민족적인 관념’에 자신을 귀속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深沢夏衣, 『なぜ彼女たちは書くのか?創作活動をする在日女性へのアンケート』, 『地に舟をこげ』 3, 在日女性文芸協会, 2008, 74쪽)

의 사장과와의 심한 언쟁으로 인해 퇴사하여, 그 해 11월에 오키나와 반환(沖繩返還)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난다. 3주간의 현지조사와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한 내용을 1970년에 『오키나와에서 생각했던 것(沖繩で考えたこと)』으로 발표한다. 주로 일본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차별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마음,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후 1971년에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어머니가 이모들과 그간 나누지 못한 대화를 조선어로 나누는 모습에 압도당해 일본으로 돌아가면 조선어를 배울 것을 결심한다. 그 뒤에도 재차 한국에 방문하였다.<sup>3)</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녀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30대가 된 해 1973년에 재일조선인 잡지 『계간 마당(季刊まだん)』(이하, 『계간 마당』)에 「결혼을 저지하는 것(結婚を阻むもの)」(『계간 마당』 3호, 1974년 5월에 간행)을 투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동포와 친교를 다지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부터는 『계간 마당』의 편집부에 들어가게 된다.<sup>4)</sup>

『계간 마당』은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남과 북 모두를 시야에 둔 잡지로, 최대한 정치적 이슈를 피해 민족의 전통문화란 공통항에 집중하였으나, 그러한 『계간 마당』의 방침에 대해 수많은 재일조선인으로부터 비판이 있었다. 그 대표적으로 1975년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 창간호에 수록된 김석범의 「당파성을 싫어하는 당파성이라는 것(党派ぎらいの党派のということ)」<sup>5)</sup>이

3) 深沢夏衣, 『略年譜』,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719~720쪽.

4) 『계간 마당』(1973~75)은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을 배경으로 창간되었으며, “이테올로지 문제를 지면에서 배제했으며 재일 한인 사회 계승 문제와 같은 사회 내부적 담론 위주로 구성”한 잡지의 방침은 ‘민족’과 ‘조국’이란 거대담론을 중점을 한 기존의 재일조선인잡지와 차별화라는 의미를 넘어,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관심으로의 시선 변화”를 모색한 잡지로 평가받고 있다.(김환기·유숙자·윤대석·이승진, 『해의 한인문학 창작 현황 자료집2: 재일한인문학』, 한국문학번역원, 2020, 61~63쪽)

5) 김석범은 여기서 ‘중립’이란 미명하에 민중들을 억압하는 한국의 군사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정치적’인 행동이라 여겨 다루지 않는 『계간 마당』의 방침을 비판함과 동시에 『계간 마당』의 일부 편집위원이 한국정부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제일조선인사회에서 살아있는 지성으로 평가받는 김석범의 작심 비판은 『계간 마당』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가했으며, 결국 1975년에 간행된 6호를 끝으로 폐간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계간 마당』의 편집부에는 2세들도 참여하고 있었으나, 주로 1세대가 주축이 되어 발행했던 잡지였다. 그렇기에 2세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sup>6)</sup> 이에 ‘2세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잡지가 필요하다고 느낀 『계간 마당』의 편집부에 참가했었던 2세대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잡지를 발간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계간 잔소리(季刊ちゃんそり)』(이하, 『계간 잔소리』)이다.

후카사와 카이도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생각해보고 싶다”<sup>7)</sup>는 마음에 동참한다. 그렇기에 그녀는 『계간 잔소리』의 편집위원으로서의 활동과 함께 다양한 테마의 에세이, 수기(手記), 서평 등을 투고하였다. 아래의 [표1]은 후카사와 카이가 『계간 잔소리』에 투고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1] 후카사와 카이가 『계간 잔소리』에 투고한 글들 (간행년도 순)

종류	제목(일본어/한국어)	호	간행년도
좌담회	座談会 〈在日)を生きる者たちから [좌담회 〈자이니치)를 사는 자들로부터]	1호	1979년 9월
에세이	朝鮮人ユーレイが出た!? [조선인 유령이 나왔다!]	1호	1979년 9월

이에 『계간 마당』 측은 김석범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재판까지 이르게 된다. 후카사와 카이는 이 사건에 대해 4장에서 다룬 『밤의 아이』에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金石範, 『党派ざいの党派的ということ』, 『季刊 三千里』 1, 三千里社, 114~121쪽)

6) 『계간 잔소리』의 편집위원 중의 한명인 오덕수는 『계간 잔소리』 창간호의 좌담회에서 “『마당』은 〈자이니치(在日)〉란 공통항을 전제로 한다는 그 소박한 점에 나는 항상 신선함을 느꼈다. 『마당』은 1세의 문제의식으로 편집되어졌으며,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으나, 역시 2세의 의식과는 상당히 달랐다” 언급하고 있다. 이에 후카사와 카이도 “조선을 체화하고 있는 자와 일본에서 태어난 자는 피는 같아도 의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여 오덕수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吳徳洙・山口文子・金斗年, 『編集委員座談会 〈在日)を生きる者たちから(1): 『ちゃんそり』に託したい同胞への思い』, 『季刊ちゃんそり』 1, ちゃんそり舎, 1979, 8쪽)

7) 吳徳洙・山口文子・金斗年, 『編集委員座談会 〈在日)を生きる者たちから(1): 『ちゃんそり』に託したい同胞への思い』, 『季刊ちゃんそり』 1, 8쪽.

에세이	ホモなんてキライというあなたに [호모 따위 싫어하는 당신에게]	2호	1979년 12월
담화	対話/奈秋月 女にとっての家・家族・そして男 [담화/종추월 여자에게 있어서 집·가족·남자]	3호	1980년 4월
수기	食卓のない家 [식탁이 없는 집]	3호	1980년 4월
서평	人間の尊厳とファシズムの本質を問う記録文学 [인간의 존엄과 파시즘의 본질을 묻는 기록문학]	3호	1980년 4월
수기	人の助けは借りたくない [남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	4호	1980년 8월
에세이	人による年のとり方は? [사람마다 나이를 먹는 방법은?]	4호	1980년 8월
에세이	”背善”のすすめ [“배선(背善)의 추천”]	5호	1980년 11월
서평	『モデル』に捕われない女たち [‘모델’에 얽매이지 않는 여자들]	6호	1981년 6월
서평	『朝を見ることなく』の読み方読まれ方 [『아침을 보지 않고-서형제의 어머니, 오기순(吳己順)의 생애-』 를 읽는 법 읽히는 방법]	6호	1981년 6월
에세이	アンケートを読んで〈在日〉における国籍の意味 [설문조사를 읽으며: 〈자이니치〉에게 있어서 국적의 의미]	7호	1981년 9월
서평	ライ患者の生きてきた道 [나병환자가 살아온 길]	7호	1981년 9월
좌담회	座談会 ちゃんそり風〈在日〉試論 [좌담회 잔소리풍 〈자이니치〉 시론]	8호	1981년 12월
에세이	戸籍制度をなくそう [호적제도를 없애자]	8호	1981년 12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카사와 카이는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글을 투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계간 잔소리』에서의 왕성한 집필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쓰고 싶은 것은 쓰지 못했음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내가 소설을 쓰고자 마음먹은 것은 40살이 넘는 무렵으로, 4년 가깝게 관여해온 재일 2세의 잡지(계간)가 휴간을 맞이하여 무료한 일상을 보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4년 동안 편집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른바 ‘재일문제’에 뒤범벅이 되도록 시간을 보냈으나, 휴간으로 동료들과 떨어져 홀로 되었을 때, 움직임이 멈춰버린 손의 쓸쓸함과 동시에, 불완전한 생각(不完全の思い)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다.

멤버들과 그토록 말을 나누며, 논의도 하고, 계발도 하고, 공감도 했었지만, 역시 자신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것은 써 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것은 소설이란 형태가 아니면 나타낼 수 없다는 자신이 있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놀라기도 했다.**<sup>8)</sup>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

이에 본고에서는 후카사와 카이가 글을 쓰는 수단으로써 잡지에서 문학작품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녀가 몸담은 『계간 잔소리』가 어떠한 성격을 지닌 잡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창간 배경과 지향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후카사와 카이가 『계간 잔소리』에 주로 어떠한 내용의 글을 발신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소설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카사와 카이의 첫 번째 소설 『밤의 아이(夜の子供)』를 중심으로 그녀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계간 잔소리』의 창간 배경과 지향점

『계간 잔소리』의 창간 배경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창간된 시기인 1970년대란 시대적 배경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sup>9)</sup>

8) 深沢夏衣, 『文学と出会う』, 『深沢夏衣作品集』, 475쪽. 초출은 『社会文学』 26, 日本社会文学会, 2007.

9) 1970년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단순히 『계간 잔소리』가 창간된 시대적 배경이란 이유뿐만이 아니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이 시대에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윤건차는 1970년대를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도임과 동시에,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전환기가 되었던 연도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자각이었으며, ‘자주성’이라든가 혹은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고 정의내리고 있다.<sup>10)</sup>

자칫 잘못하면 민족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긴 시대라고 바라볼 수 있으나, 윤건차가 말한 “‘민족’에 대한 자각”은 남과 북이란 ‘조국’과의 관계나 통일 문제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 일본사회의 민족차별로 인해 자각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인이란 사실, 그리고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로 갈라져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스러운 재일조선인사회의 내부에서 필사적으로 살아갈 것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바이다. 이른바 ‘자이니치(在日)’라는 말의 등장과 함께 일본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격투가 시작된 시대가 1970년대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서 그 이전의 시대인 1960년대가 아닌 1970년대인 것일까? 그것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문장으로 후카사와 카이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부속협정으로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호)은 협정의 효력발생일(1966년 1월 16일)로부터 5년간, 즉 1971년 1월 16일까지 한국적을 지닌 재일조선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협정영주권(協定永住權)이다. 당시 약 60만 명의 재일조선인 가운데 약 35만명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약 34만 2,000명이 일본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무국적 거류자’에서 ‘한국적 영주자’로 변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영주자’로 변경된 이후, 즉 일정 기간 일본에 거류하다 인젠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류민’이 아닌 일본에 정주하는 ‘자이니치(在日)’란 의식을 싹트게 하였다. 참고로 나머지 약 25만 명의 재일조선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든가 혹은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2015, 161~164쪽; 尹健次, 『『在日』の精神史』 2-三つの国家のはさまで, 岩波書店, 2015, 199~203쪽; 金雄基, 『韓国入国問題を通して見る朝鮮籍者の政治的多様性の看過』, 『朝鮮籍とは何か－トランスナショナルの視点から』(李里花 편), 明石書店, 2021, 113~126쪽.

10) 尹健次, 『『在日』の精神史』 2-三つの国家のはさまで, 215쪽.

되돌아보면 70년대는 전후 태생인 2세에게 있어 매우 자극적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68년의 김희로(金嬉老) 사건을 거쳐, 70년에는 귀화 2세인 아마무라 마사아키(山村政明, 민족명은 양정명)의 분신자살, 박종석(朴鐘碩)의 히타치 취직차별 소송(日立就職差別訴訟)이 있었다. 73년에는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의 한국유학생, 서형제(徐兄弟)의 형 서승(徐勝)의 사형에서 무기징역 판결, 74년에는 문세광(文世光)의 박대통령 저격미수사건이 일어났다(반도의 정치정세도 격동하고 있었다).

이들 사건의 당사자는 김희로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던 제일청년이며, 그들의 삶은 여러 의미에서 2세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 수 없었다.<sup>11)</sup>

1970년대는 남북의 격심한 이념대립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박대통령 저격미수사건”과 같은 젊은 2세들이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조국’을 바라보는 제일조선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서는 박종석의 히타치(日立) 취업차별 투쟁<sup>12)</sup>으로 대표되는 제일조선인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한편, 부모의 ‘귀화’로 인해 어린 시절 일본국적을 취득한 아마무라 마사아키(山村政明)의 분신자살<sup>13)</sup>로 대표되는 제일조선인의 정체성 문제, 남북 ‘조국’과 일본사회의

11) 深沢夏衣, 「『民族』というコトバ」, 『深沢夏衣作品集』, 469쪽. 초출은 『社会文学』 23, 日本社会文学会, 2006.

12) 박종석의 제소는 제일조선인 청년에 대한 취직차별이 당사자의 향의로 인해(제일조선인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인지되었던 사실이었지만), 그동안 일본사회의 숨겨진 제일조선인을 향한 차별과 억압의 실태가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70년에 시작된 재판은 4년간 이어갔으며, 끝내 승소하여 1974년 9월에 입사하였다. 그 이후 2011년 3월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약 37년간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부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내의 민족차별과 인권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직장 내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朴鐘碩, 『日立闘争から原発メーカー一起訴までの軌跡』, 『在日総合誌 抗路』 3, 抗路舎, 2016, 182~191쪽)

13) 아마무라 마사아키(山村政明)는 죽기 직전에 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일본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선인도 아닌 조국상실자”로 정의를 내렸으며, ‘귀화자’란 이유로 일본사회에도 제일조선인사회에도 속할 수 없었던 냉혹한 현실에 절망하여 “나의 안주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란 글을 남겼다. 그의 죽음은 1970년대 제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 ‘귀화’를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하는 제일조선인사회의 배타성 등 다양한 모순들이 뒤섞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姜尚中, 『母-オモエ-』, 集英社, 2010, 216~217쪽)

경계에 위치한 재일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장에서 언급하다시피, 젊은 2세들을 위한 공론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1세들을 주축으로 한 표현매체가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조국’의 정치적 문제와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조국’과 ‘민족’이란 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2세들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창간한 것이 바로 『계간 잔소리』이다. 이것은 ‘조국’과 ‘민족’으로 환원할 수 없는 2세들의 생생한 목소리의 집합체로, 1세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계간 잔소리』는 영화감독인 오덕수(1941~2015)와 문예비평가인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 1947~) 등을 중심으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약 2년간 간행된 최초의 2세들을 중심으로 한 잡지이다. 각호마다 ‘난민’,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혼혈’, ‘국적’, ‘자이니치 시론(〈在日〉試論)’ 등의 다양한 주제를 특집으로 다룸으로써 주로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나갔다.

『계간 잔소리』는 이러한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한 특집기사와 함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한 좌담회,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독자투고란 등을 마련하여 2세들의 젊고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간 잔소리』의 방침에 대해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문경수는 “지면은 1세의 민족규범에 대한 독기를 품은 야유와 이의제기로 넘쳐흘렀으며, 전후세대의 독자적인 표현매체로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4)</sup>

이처럼 1세들과 달리 ‘조국’을 경험하지 못한 2세들을 중심으로 한 『계간 잔소리』는 ‘조국’과 일본사회의 경계선에서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를 “‘북’이냐 ‘남’이냐는 질문을 받은 편집위원이 ‘동’이다 하고 답한

14)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196쪽.

것처럼 민족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의 삶을 조명할 것을 지향한 무정부적 감성의 잡지”였다는 점에서 시대를 관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계간 잔소리』에서 후카사와 카이는 주로 어떤 내용을 발신하였는지에 다음 장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 3. 후카사와 카이의 『계간 잔소리』에서의 집필활동

후카사와 카이는 훗날 자신의 『계간 잔소리』에서의 활동에 대해 “‘민족’이란 말이 개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민족론(民族論)’이라든가 ‘민족학(民族學)’에 대한 규정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6)</sup> 그녀의 시도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이란 개념이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 『계간 잔소리』의 방침과도 부합한 것이었다.

1장의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카사와 카이는 『계간 잔소리』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일본의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와 함께, 주변에 흔히 있는 재일조선인의 가족의 모습에도 집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형식을 지닌 글이 많았다.

어린 시절의 집은 증오의 길목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서로를 미워하였다. 하루 중에 저녁을 먹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15) 양명심, 「‘재일의식’의 비관적 재구성: 잡지 『잔소리(ちゃんそり)』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81,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160쪽.

16) 深沢夏衣, 「『民族』というコトバ」, 『深沢夏衣作品集』, 469쪽.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하고 있었으며, 피로에 지친 어머니는 검푸른 얼굴로 언짢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무엇이든 상관없어, 어찌되었든 밥을 쑤서 넣어 한사라도 빨리 상을 차리는 것이 목적인 식사. 그것이라도 끝까지 먹을 수 있었다면 다행일 정도였다. 운이 나쁘면(이 같은 경우가 많았었지만), 밥상을 덮어치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짐승처럼 맞닥뜨리는 광경을 마주했어야 했다.

하루는 옆 동네로 이사를 간 하루코(ハルコ)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편안하게 폭 잤었다. 거기는 마치 천국과 같이 편안했다. 바깥에서 놀고 있으면 “밥 먹어야 하니, 얼른 오렴”이라고 부르러 와, 모두 함께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다.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도 즐겁고 재밌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정도 머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차에서 내려 고철로 언저리를 파묻은 듯 한 우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sup>17)</sup>

후카사와 카이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상냥하며, 식사 시간이 될 때 “밥 먹어야 하니, 얼른 오렴”이라고 불러주는 어머니를 추구하고였으며, “천국과 같이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의 집안은 언제나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있었으며, 식사시간 때마다 어머니에게 곧잘 고향을 지르며 거친 부부싸움으로 집안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어린 그녀에게 그러한 집안은 증오의 대상이었으며, 집안의 밥상 분위기와 주변 친구들의 그것과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일본인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으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은 기분이었다.

어머니와 격렬하게 대립했던 소녀시대의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세상과의 연결을 막는 커다란 존재로 여겨졌다. 그것은 소녀인 내가 본능적으로 파악했던 조선여자의 삶의 곤란함(朝鮮女の生の困難さ)과 같은 것에 어두운 반발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고된 노동으로 지친 어머니의 작은 몸에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남성성에 반발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골적인 싸움 속에

17) 深沢夏衣, 『食卓のない家』, 『深沢夏衣作品集』, 493~494쪽. 초출은 『季刊ちゃんそり』 3, ちゃんそり舎, 1980.

서 자신이 조선인의 자식이라는 숙명적인 낯새를 받고, 자식 마음에 절망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우리 가족은 운명공동체이며, 그것은 아무리 저항해도 탈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감각이 소녀인 나를 계속 지배하였으며, 그것에 저항하는 분명한 목표가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sup>18)</sup>

어린 시절의 후카사와 카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응시함으로써 한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자립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를 포함한 1세 여성들은 시대의 운명에 내던져지고 그 운명에 농락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타개하기보다는 자신의 팔자가 나뻐다고 탄식하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견딜 뿐이었다. 후카사와 카이는 그것을 “조선여자의 삶의 곤란함”으로 정의내리며,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에 태어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삶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여성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묵묵히 견디는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후카사와 카이는 자신의 가족(특히, 어머니)을 통해 자신이 조선인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와는 달리 그녀 자신은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녀의 의지는 재일조선인 여성시인인 종추월과의 담화 「담화/종추월 여자에게 있어서 집·가족·남자」에서도 재일조선인의 가족은 ‘운명공동체’적이란 감각이 있음을 비판함으로써 “먼저 인간이라는 여자의 외침을 소중히 하고 싶다”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sup>19)</sup>

그밖에도 그녀는 각각 7호와 8호에 「설문조사를 읽으며: 〈자이치〉에게 있어서 국적의 의미」와 「호적제도를 없애자」 등을 투고함으로써 국적조항을 바탕으로 재일조선인을 향한 일본사회의 차별,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 박탈의 구실로 사용된 호적제도, 그리고 그것들을 사상적으로 지탱하는 천황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8) 深沢夏衣, 「『モデル』に捕われない女たち」, 『深沢夏衣作品集』, 396쪽. 초출은 『季刊ちゃんそり』 6, ちゃんそり舎, 1981.

19) 山口文子, 「対話/宗秋月 女にとっての家・家族・そして男」, 『季刊ちゃんそり』 3, ちゃんそり舎, 1980, 7~8쪽.

이렇듯 후카사와 카이는 『계간 잔소리』에서 활발한 집필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훗날 『계간 잔소리』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바로 ‘귀화’의 문제를 다룬 『밤의 아이』인 것이다.<sup>20)</sup>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의 국적의 의미에 대한 글도 작성했었던 그녀가 어째서 재일조선인의 ‘귀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글은 쓰지 못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잡지가 ‘독자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다 유코(飯田祐子)가 지적하듯이, 글쓰기와 그 대상이 되는 독자는 모두 일률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중층화(重層化)된 존재이다. 글쓰이는 자신의 글이 이러한 다수의 불특정 독자에게 읽혀진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그것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글쓰기와 독자의 정체성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21)</sup>

이처럼 같은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라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전술하다시피 『계간 잔소리』는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독자투고란을 마련하여 공론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 나타나듯이, 『계간 잔소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 “동화, 풍화를 촉진하는 잡지이며, 오히려 발간하지 않는 편이 낫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sup>22)</sup> 또 잡지를 발간한지 1년이 되는 5호에서도 『계간 잔소리』를 향한 독자들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잔소리는 KCIA란 뒷 배경을 지닌 잡지이다.(잔소리 KCIA설)

잔소리는 총련(總連) 관계자의 기관지이다. 조선이란 호칭이 그 증거이다.(동,

20) 深沢夏衣, 『文学と出会う』, 『深沢夏衣作品集』, 475~476쪽.

21) 飯田祐子, 『彼女たちの物語 - 語りにくさと読まれること -』,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1~19쪽.

22) 編集部, 『編集後記』, 『季刊ちゃんそり』 1, ちゃんそり舎, 1979, 48쪽.

총련설)

잔소리는 제일조선인을 조국과 떨어뜨려 제일조선인의 기민화(兼民化)에 힘쓰고 있다.(동, 반동설)

잔소리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반동형성을 위한 잡지이다.(동, 반계급성설)

잔소리는 동화 촉진을 위한 유해한 서적이다.(동, 자판기설)

잔소리는 한심한 녀석들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책이다.(동, 자기합리화설)<sup>23)</sup>

이처럼 『계간 잔소리』를 향한 독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다양하였다. 이러한 독자들의 존재는 후카사와 카이로 하여금 글을 쓰는 주제를 상당히 제한하게 만들었으며, 민감한 주제인 ‘귀화’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이다.

실제로 독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그녀는 『계간 잔소리』에서도 국적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필명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4)</sup> 그리고 다음 장에 다룰 그녀의 첫 번째 소설 『밤의 아이』를 통해 신일본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을 때 그 기쁨보다도 주변의 제일조선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들을지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한동안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한다.<sup>25)</sup> 그렇기에 필명을 사용하였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23) 編集部, 「トケビの目 ちゃんそり1年被虐の旅」, 『季刊ちゃんそり』5, ちゃんそり舎, 1980, 18쪽.

24)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필명을 사용한 문예가로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가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민족명’을 거부하였으며, ‘민족’이란 문제를 넘어 자신의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 이유”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 ちくま学芸文庫, 1995, pp.276~279). 후카사와 카이 역시 ‘민족적인 규범’에 자신을 속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민족명 사용을 거부하였으나, 그녀의 경우는 독자들의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잡지에 자신의 글을 투고하고 있다는 점을 더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작가는 글을 쓰는데 독자와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관계성에 대한 문제이다. 글쓰기(書くこと)는 읽히는 것(読まれること)에 노출되어 있다. 작가는 독자와의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신의 글쓰기의 균열과 미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쓰고자 한 것을 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긋남(ずれ)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후카사와 카이가 필명을 사용한 이유로는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으로부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함과 더불어 자신의 표현의 세계를 펼치고자 하는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飯田祐子, 『彼らの物語 - 日本近代文学とジェンダー -』, 名古屋大学出版会, 1998, pp.5~7 참고).

25) 深沢夏衣, 『初めての小説』, 『深沢夏衣作品集』, 454~455쪽. 초출은 『本』 18, 講談社, 1993.

그렇다면 그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어쩌다 쓰다 보니 ‘귀화’에 대해 썼다고는 하나, 단순히 ‘귀화론(歸化論)’에 대한 글을 쓰자 하였던 것이었을까. 다음 장에서 그녀의 첫 번째 문학작품 『밤의 아이』를 중심으로 그녀가 창작활동을 펼치면서 표현하고자 한 바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 4. 표현매체의 변환: 자유로의 추구

『밤의 아이』는 후카사와 카이가 『계간 잔소리』의 폐간 이후 쓰기 시작한 첫 번째 문학 작품이다. 그녀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자신을 모티브로 한 하야마 아키코(葉山明子)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귀화’를 둘러싼 갈등과 고민, 그리고 재일조선인사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생생히 나타내고 있다.

소설의 도입부는 하야마 아키코가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 『바람(ぱらむ)』의 편집부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녀가 거기서 우철과 수환, 그리고 영일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다양한 토의를 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아키코는 잡지 『바람』이 창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일조선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주변의 재일조선인과 중첩시켜 바라보지 못해 스스로 고립되어 있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며 『바람』의 편집부에 들어간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일조선인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남과 북의 정치적 정세(情勢)에 따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재일조선인사회에 대해 아키코는 어쩌서 ‘조국’에 얽매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서는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로는 자신이 일본국적을 지닌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귀화자’를 향한 재일조선인사회의 시선으로부터

터 자유롭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무실에 출입하는 2세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귀화자’라는 그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화자’가 재일조선인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이해방식으로 자신을 이해 받고 싶지 않았다. “일본에 무릎을 꿇은 약한 자”, “민족의 배신자”, “귀화한 것을 후회하는 자”, “일본인이 된 자” – 그런 그들의 익숙한 양해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귀화’가 후회될 일인지 아닐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인지 아닐지, ‘귀화’해도 조선인인지 아닐지, ‘귀화’ 후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아키코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리게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긴장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sup>26)</sup>

우키바 마사치카(浮葉正親)가 언급하듯이, “재일조선인의 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재일조선인에 의한 귀화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금까지 터부시되어온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작중에서도 나타나듯이 ‘귀화자’에게는 “일본에 무릎을 꿇은 약한 자”, “민족의 배신자”, “귀화한 것을 후회하는 자”, “일본인이 된 자”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만이 주어졌으며, 어째서 ‘귀화’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경위를 설명해야만 했다. 아키코는 이러한 ‘귀화자’에 대한 재일조선인사회의 편견과 배타성으로 인해 괴로워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키코는 편집부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 일례로 아키코는 민족명인 ‘배명자(裴明子)’로서가 아니라 일본명인 ‘하야마 아키코(葉山明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빼앗겼던 이름’인 민족명을 되찾음으로써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선

26) 深沢夏衣, 『夜の子供』, 『深沢夏衣作品集』, 36~37쪽. 초출은 『夜の子供』, 講談社, 1992.

27) 浮葉正親, 『〈在日〉文学の新しい動向 - 在日女性によるもう一つの文学の創出 -』, 『名古屋大学 日本語・日本文化論集』 14, 名古屋大学留学生センター, 2007, 128쪽.

인으로서의 주체성에 눈을 떠야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아키코에게 있어 그러한 말은 폭력적인 언행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박성주가 지적하듯이, 하야마 아키코로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언행이며, 재일조선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역사성에만 치중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sup>28)</sup> 그렇기에 아키코는 그것에 구애되지 않는 “이름이 없는 인간으로 있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아키코는 ‘귀화’라는 표현이 지닌 의미와 함께 ‘민족’과 ‘조국’이라는 말로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 국적으로 개인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재일조선인사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sup>29)</sup> 그렇기에 아키코는 그 누군가에게 타자화되고 싶지 않아 깊은 친교를 맺지 않는 등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위기가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 자각과 국적이란 요소와 연관이 있음을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4등까지의 신분제가 있다. 1등은 민족적 주체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주의자로, 물론 조선어를 할 줄 아는 녀석, 2등은 주체성은 있지만 조선어를 할 줄 모르는 녀석, 3등은 모두 결여되어 있지만 국적만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 녀석, 4등은 귀화한 녀석, 이라는 식으로 말이야. (중략)

대구나 1등 조선인들은 “북이다”, “남이다”라며 서로의 민족적 주체성의 옳음에 대해 다투고 있다. 이게 저희 모습이거든요. 일본인이 보면 1등도 4등도 아무것도

28) 박성주, 『후카사와 카이의 『밤의 아이(夜の子供)』에 나타난 귀화한 재일조선인의 표상에 대해서』, 『국제한인문학연구』 26, 국제한인문화회, 2020, 28쪽.

29) 재일조선인사회가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로는,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일본국민으로 편입된 역사적 비극과 함께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남겨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국적과 박탈, 그리고 일본의 귀화 행정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상실시켜 일본인으로 동화하는 정책으로 사용되었다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사회의 억압적 정책과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로 귀화를 선택한 재일조선인도 1970년도에 등장하기 시작하나, 이들에 대한 재일조선인사회의 평가 역시 상술한 바와 같다. (李洙任, 『奪われた在日コリアンの日本国籍 - 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 明石書店, 2021, 23~26쪽)

없는, 모두 그냥 조선인인데 말이지…… (중략)

혼혈 따위는 축에도 들어있지 않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아. 혼혈은 투명인간이야.

위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귀화자’는 민족적 정체성과 조선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제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인상 깊은 점은 “혼혈”은 보이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0)</sup>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혈통’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일본국적을 박탈당한 재일조선인이 그것과 같은 논리로 ‘혼혈’을 배타하는 재일조선인사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아키코는 이러한 혈통, 민족적 주체성, 국적, 조선어의 사용여부를 통해 개인에게 등수를 매겨 파악하는 재일조선인사회의 현실을 비판함과 동시에 “왜 자이니치(在日)는 반도의 의태(擬態)를 살려고 하는 것일까, 왜 반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적한다. 즉, 재일조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바로 자신들이며, ‘민족’과 ‘조국’이란 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로 자신들을 규정해나가야 한다는 그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배경에는 일본사회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조국’과 ‘민족’을 고집하던 부모세대와 달리 ‘조국’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2세들의 본격적인 사회진출과 연관이 있다. 해방 이후 30년이 흐른 1970년대에도 민족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일본을 임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의식은 존재하였으며, 남북이 함께 뭉친 통일된 ‘조국’이 등장하면 일본사회의 차별과 혐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하나의

30) 리홍장이 지적하듯이,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을 향한 억압적 정책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재일조선인사회는 폐쇄적인 연대를 형성해왔다. 그 연대는 바로 혈통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로, 여기서 민족명의 사용, 조선어의 습득,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중요히 여겼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가차 없이 배척하였다.(리홍장,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일본비평』 14,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36쪽)

주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한 아키코는 ‘자이니치(在日)를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들이 놓인 현실적인 생활에 중점을 두어 그 존재의 근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을 임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국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을 용인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의식을 답습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은 언제까지나 관념에 사로잡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하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 함의되어 있다.

동결된 관념의 말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련될 수 없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자이니치(在日)는 어두운 것이다. (중략)

말을 움직인다.

아키코는 소리를 내며 중얼거리며, 사실은 자신이야말로 말이 움직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누구 가리지 않고, 방자하게 겁내지 않고, 아이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키코는 편집부의 동료들을 비롯한 주변의 재일조선인을 생각하면서 “자이니치(在日)는 어째서 어두운 것일까”며 고뇌하면서, 그것은 “동결된 관념”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에 그 해결책으로 “말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말을 움직인다”는 표현은 “동결된 관념의 말”과 대비되는 의미로 재일조선인사회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이다. 기존의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답게 행동하려는 주체성을 ‘움직인다’는 표현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누구 가리지 않고, 방자하게 겁내지 않고,

아이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녀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포함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아키코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환언하자면, 재일조선인사회의 경직된 관념과 이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아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채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아키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불분명한 내면의식을 언어란 형태로 분명히 하여, 변화를 주고자 하는 아키코의 ‘추구(追究)’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작가론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밤의 아이』는 작가 자기 자신을 모티브로 한 점에서 아키코를 통해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평가한 대로, 『밤의 아이』는 “귀화란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문제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자이니치(在日) 세계에 있었음에도 “어려운 주제를 다룬 작품의 예시”로<sup>31)</sup> ‘귀화’를 포함한 경직된 관념에 함몰된 재일조선인사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개인의 불안과 비애와 같은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혹은 그것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키코란 인물을 통해 오랫동안 불분명하던 작가 자신의 내면의식을 언어화함으로써 가시화하고 있는 작품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훗날 후카사와 카이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여성인 것, 또 ‘자이니치(在日)’란 여건(与件)은 좋은 나쁜 간에 나의 인생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식할 때 나는 몹시 불편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쓰는 것의 의미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2)</sup> 즉 후카사와 카이에게 있어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그것은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계간 잔소리』의 편집위원이었던 후카사와 카이가 편집활동과 함께 충분한 기고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소설이란 장르

31) 川村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ー在日朝鮮人文学論』, 平凡社, 1999, 273쪽.

32) 深沢夏衣, 『なぜ彼女たちは書くのか?創作活動をする在日女性へのアンケート』, 74쪽.

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문학을 통해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한 시도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결국에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마음껏 표현하고자 한 자유로의 추구였던 것이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후카사와 카이가 2,30대였었던 1970년대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계간 잔소리』에서의 집필활동과 소설을 쓰게 된 경위, 그리고 그녀에게 있어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1970년대란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이란 관념에서 벗어나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작한 후카사와 카이의 『잔소리』에서의 글쓰기 활동은 ‘민족’이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응시함으로써 재일조선인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적 억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회상을 시작으로 ‘귀화’에 대한 글을 포함한 ‘국적’과 ‘이름’과 같은 재일조선인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자 한 그녀였으나, 독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걱정한 나머지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채 『계간 잔소리』는 폐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이후 그녀는 보다 더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소설을 쓰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집필한 것이 바로 『밤의 아이』였다.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던 번민과 체념을 이 작품에 털어놓았다. 이 작품에 그려진 청년들의 모습은 1970년대 재일조선인의 상황의 일단(一端)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의 재일조선인이 처한 상황은 빛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 『밤의 아이』에 나타난 주인공의 모습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민족’과 ‘조국’에 수렴하지 않고 자신만

의 장소를 찾아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결국 후카사와 카이가 글쓰기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소설을 선택한 것은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말로 내면세계를 마음껏 펼치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이후로도 후카사와 카이는 『미드나잇 콜(ミッドナイト・コール)』(『신일본문학(新日本文学)』 1993년 봄호), 『언니의 사랑(姉の恋)』(『신일본문학(新日本文学)』 1997년 9월호), 『팔자타령(パルチャ打令)』(『군상(群像)』 1998년 9월호) 등 수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재일조선인여성문예지 『땅에서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총 7호, 2006~2012)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생을 글쓰기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보다도 더 연구가 진척이 있길 바란다.

## ■ 참고문헌

### <기본서>

- 吳徳洙・山口文子・金斗年, 『編集委員座談会 <在日>を生きる者たちから(1): 『ちゃんそり』に託したい同胞への思い』, 『季刊ちゃんそり』 1, ちゃんそり舎, 1979, 8~12쪽.
- 山口文子, 『対話/宗秋月 女にとっての家・家族・そして男』, 『季刊ちゃんそり』 3, ちゃんそり舎, 1980, 2~8쪽.
- 編集部, 『編集後記』, 『季刊ちゃんそり』 1, ちゃんそり舎, 1979, 48쪽.
- \_\_\_\_\_, 『トケビの目 ちゃんそり1年被虐の旅』, 『季刊ちゃんそり』 5, ちゃんそり舎, 1980, 18쪽.
- 深沢夏衣, 『なぜ彼女たちは書くのか?創作活動をする在日女性へのアンケート』, 『地に舟をこげ』 3, 在日女性芸協, 2008, 73~75쪽.
- \_\_\_\_\_, 『夜の子供』,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17~120쪽.
- \_\_\_\_\_, 『「モデル」に捕われない女たち』,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396~399쪽.
- \_\_\_\_\_, 『初めての小説』,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453~455쪽.
- \_\_\_\_\_, 『「民族」というコトバ』,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468~470쪽.
- \_\_\_\_\_, 『文学と出会う』,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475~478쪽.
- \_\_\_\_\_, 『食卓のない家』,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493~495쪽.
- \_\_\_\_\_, 『略年譜』, 『深沢夏衣作品集』, 新幹社, 2015, 718~726쪽.

### <단행본>

#### 1) 일본어 문헌

- 姜尚中, 『母-オモニー』, 集英社, 2010.
- 川村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在日朝鮮人文学論』, 平凡社, 1999.
-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 ちくま学芸文庫, 1995.
- 徐京植,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ひと?』, 平凡社, 2012.
-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2015.
- 尹健次, 『「在日」の精神史』 2-三つの国家のはさまで, 岩波書店, 2015.
- \_\_\_\_\_, 『「在日」の精神史』 3-アイデンティティの揺らぎ, 岩波書店, 2015.
- 飯田祐子, 『彼らの物語-日本近代文学とジェンダー-』, 名古屋大学出版会, 1998.
- \_\_\_\_\_, 『彼女たちの物語-語りにくさと読まれること-』,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 李洙任, 『奪われた在日コリアンの日本国籍-日本の移民政策を考える』, 明石書店, 2021.

#### 2) 한국어 문헌

- 김한기·유숙자·윤대석·이승진, 『해외 한인문학 창작 현황 자료집2: 재일한인문학』, 한국문학번역원, 2020.

### <논문>

#### 1) 일본어 논문

- 金石範, 『党派ぎらいの党派的ということ』, 『季刊 三千里』 1, 三千里社, 114~121쪽.

金雄基, 『韓国入国問題を通して見る朝鮮籍者の政治的多様性の看過』, 『朝鮮籍とは何か—トランスナショナルの視点から』(李里花 編), 明石書店, 2021, 110~145쪽.

朴鐘碩, 『日立闘争から原発メーカー起訴までの軌跡』, 『在日総合誌 抗路』 3, 抗路舎, 2016, 182~191쪽.

浮葉正親, 『<在日>文学の新しい動向—在日女性によるもう一つの文学の創出—』, 『名古屋大学 日本語・日本文化論集』 14, 名古屋大学留学生センター, 2007, 125~137쪽.

## 2) 한국어 논문

리홍장,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일본비평』 14,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34~157쪽

박성주, 『후카사와 카이의 『밤의 아이(夜の子供)』에 나타난 귀화한 재일조선인의 표상에 대해서』, 『국제한인문학연구』 26, 국제한인문학회, 2020, 11~37쪽.

양명심, 『‘재일외식’의 비판적 재구성: 잡지 『잔소리(ちゃんそり)』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81,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155~173쪽.

## 深沢夏衣における「書くこと」の意味

－小説を書くまでの経緯について－

朴 成柱\*

本稿は、これまで等閑視かつ不可視化されてきた在日朝鮮人女性作家の深沢夏衣(1943~2014)に注目したものである。深沢夏衣は、日本国籍をもつ在日朝鮮人2世の女性作家である。彼女は寡作ながら平明・的確な文体で、市井に生きる在日朝鮮人の家族・女性を描いてきた。彼女は編集者としての一面ももち、様々な在日朝鮮人の雑誌を発信した。しかし、深沢夏衣に対する在日朝鮮人社会の評価は、『『帰化』した在日朝鮮人女性』であり、彼女はその言葉に敏感であった。

深沢夏衣が周囲からの視線に最も揺れているのは、デビュー作『夜の子供』(講談社、1992)である。こうした揺らぎは在日朝鮮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葛藤とも見られるが、深沢夏衣の『書き手』としての観点と、それを見定めようとする周囲の存在を踏まえてみると、自らの作家イメージとの交渉過程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そこで、本稿では、深沢夏衣の小説『夜の子供』を中心に、彼女が何と対峙し、いかなる名づけを回避し、その表現の世界を拓いていったかを考察することで、深沢夏衣における『書くこと』の意味について検討した。

**キーワード**: 深沢夏衣、在日朝鮮人、『季刊ちゃんそり』、『帰化』、書くことの意味。

논문투고일: 2022년 4월 24일 || 심사완료일: 2022년 5월 1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31일

\* Ph.D. Student, Nagoy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 Humanities.

